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나는 내 몸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교황 “타인 위한 선물 되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혼란스러운 사회의 무관심에 맞서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되라” 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제 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 강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강론했다.

특별히 교황은 이기심을 멀리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 맞서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교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땅에 묻어두지 말자.” 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와 함께 쉼 하시며 가난한 이들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적, 문화적, 영적 형태의 가난을 생각하자.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자. 바쁘고 혼란스러운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이 고통에 찬 그들의 부르짖음을 물어버렸다. 억눌리고 지치고 소외된 이들, 전쟁 피해자들,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을 생각하자. 굶주리는 이들,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이들을 생각하자. 가난한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며 “가난한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 5,000명의 신도가 성베드로 대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교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해 사셨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 그분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었다.” 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일지, 가난한 이들을 보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자문해 보자.” 고 당부했다.

교황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분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되라고 부름받았다.” 며 “우리가 주변에 사랑을 퍼뜨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가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이미 죽은 것처럼 땅에 묻히고 만다.” 고 역설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직면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및 과거에 대한 회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애착과 회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몸에 내가 있다는 것, 한 마디로 '나의 몸' 이라는 소유의식이 머리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달리 몸은 늙거나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몸뚱이가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은 한 마디로 착각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몸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임시로 관리를 맡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꾸어주느라 바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보니 몸뚱이가 시중드느라 바빠 '참 나' 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토록 애써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소리 들려주느라 최선을 다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란 이렇듯 임시로 맡았던 몸뚱이의 관리시효가 다해가



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깨운한 일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떠나라 한다면 무척 서운할 것입니다. 당연히 미련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놓아두고 떠나라 한다면 그다지 서운할 까닭이 없습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소유자에게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것이고 관리자는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물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출가분한 심정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몸뚱이뿐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집, 재물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조차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했을 뿐입니다. 내 가족도 금생에 가족일 뿐입니다. 내생에는 또 다시 어떤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생에 못 다한 인연이나 한스러운 사연에 대해서도 너무 애달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삼라만상에 못 다한 인연이

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죽음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항상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에 오류란 없습니다. 금생과의 연이 다 했으니 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지어 놓은 업에 따라 또 다른 몸을 받으러 떠나는 것뿐입니다.

영가를 위해 베풀어주는 말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實相異名 진실한 모습은 이름을 떠났으며,
法身無跡 본 마음 참 나는 자취가 없지만
從緣隱現 연(緣)따라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若鏡像之有無 마치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으며,
隨業昇沈 업(業)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如井輪之高下 마치 두레박 줄이 오르고 내림과 같아서,
妙變莫測 오묘한 변화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참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생에서의 이름일 뿐입니다. 전생에서는 다른 이름이었고 내생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의 이름이란 말입니까?

참 나는 자취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은 금생에서의 몸일 따름입니다. 전생에서는 다른 몸이었고 내생에는 또 다른 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월호 스님-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